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16면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양구	1
江原日報	02면	오늘 양양서 ‘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 ’	1
 KBS 강릉	온라인	‘ 급발진 의심 ’ 할머니 경찰 조사... “ 브레이크 작동 안 돼 ”	2
江原日報	14면	태백 의용소방대의 날	3
江原日報	13면	고성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	3
강원도민일보	11면	원주시 주니어야구단 창단	3
 MBC 강원영동	온라인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정체 극심' "해법 없나?"	4
江原日報	21면	[동정] 심영곤 강원도의원(삼척)	5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심영곤 강원도의원	5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청 제2청사의 개념은 분산 아닌 확장시키는 것"	6
강원도민일보	03면	특별법 · 제2청사 · 반도체...정치력 시험대 오른 김 지사	6
江原日報	04면	제2차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협업위원회	7
江原日報	21면	道,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정지원본부 보고회	7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강원도-도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	8
강원도민일보	01면	지역의료 소멸 집중진단	9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 바이오 · 헬스산업 4개 권역 집중 육성	10
江原日報	02면	道-삼성 이달 중 원주 반도체 산업 투자 협의	11
江原日報	20면	도내 10개 시 · 군에 장애아 돌보미 없어 ‘ 양육 지원정책 구...	12
강원도민일보	23면	정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범국민추진위 활동 돌입	12
강원도민일보	17면	양양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속도	13
江原日報	11면	횡성 서원에 힐링 식물박물관 만든다	13
강원도민일보	12면	강릉시 153억원 투입 대형 산림재해 막는다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국가사적 건봉사지 명소화 과제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지역의사제 도입해 대폭 양성해야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정부, 강원특별자치도에 관심 있거나 한 건가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사흘간 산불 · 화재 20건, 경각심 높여야 할 때다	18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1일 (화)

지역 16면



양구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가 20일 양구소방서에서 서흥원 군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김선묵 군부의회장, 김동기 소방서장, 의소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1일 (화)

종합 02면

오늘 양양서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

특별자치도시대 관광 비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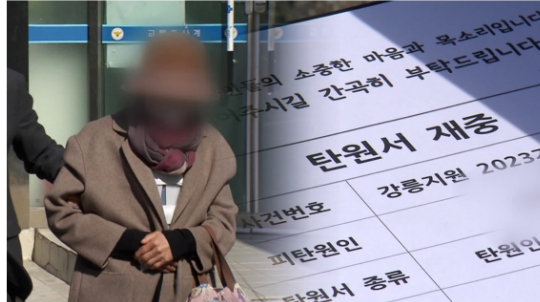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양양군, 강원연구원, 강원일보사는 21일 오후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특별자치시대 강원관광의 새 도약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승각 강원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이 ‘오색케이블카와 지역관광’,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

추진단장이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또 강상국 강릉원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와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 진종호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특별위원장,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 전용우 양양군노인회장 등이 종합토론을 통해 강원특별자치시대 강원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한다. 최기영기자

‘급발진 의심’ 할머니 경찰 조사...“브레이크 작동 안 돼”



[앵커]

지난해 말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손주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뒷좌석에 탄 12살 손자가 숨졌고, 운전자인 숨진 손자의 할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가 사고 석 달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차량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 멈추려고 했지만, 이마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중선/가족 측 법률대리인 : "N(중립)으로 하려고 했는데 N으로 안 들어갔다는 거죠. 변속 레버가.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러시고 차는 더 빨라지고."]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부실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어머니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어머니가) 죄가 없음을 저희는 확신하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평생 안고 가셔야 할 그 죄책감을 오늘 이 조사 이후로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에 대한 7천여 명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의회와 강릉시의회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결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江原日報

2023년 03월 21일 (화)
지역 14면



태백 의용소방대의 날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20일 서내에서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시의장, 이한영·문관현 도의원과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1일 (화)
지역 13면



고성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가 20일 오전 간성읍 및 고성소방서 대회의실에서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이지영 도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서강원 소방서장 및 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1일 (화)
지역 11면



원주시 주니어야구단이 최근 창단했다.

원주시 주니어야구단 창단

원주시 주니어야구단이 창단됐다. 원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한운길)는 최근태장체육공원에서 건강하게 땀 흘리는 원주를 위해 시 주니어야구단을 창단했다. 단장에는 한운길 회장이당연직으로 임명됐으며 명예단장에는 최재민 도의원이 위촉됐다. 두산베어스 출신 이윤학감독, 김명규 전 삼성라이온스출신 수석코치가 지도한다.

홍성우

속초관광수산시장 '정체 극심' "해법 없나?"

박은지

속초시 대표 관광명소인 관광수산시장일대에
주말이나 휴일이면
교통 혼잡과 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광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한
장·단기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속초시 수복로 3개 차로 가운데
유독 2, 3차로에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면
교차로를 지나야 하는데
차선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며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 휴일이면
500m 이상 늘어서고,
길게는 30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이 문제가 거론돼,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해
교차로를 지나 줄어드는 차로를 3차로로 늘리고
우회전 차로를 확대하자는 방안이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강정호 도의원은
수복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정호 / 강원도의원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 진입을 위한 우회전 차로 개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속초시는 심의위 방안 가운데
이달 중에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신호체계 변경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에 비해
주차장 수용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 보니,

관공서 주차장 개방과 대형 주차장 증설 등
단기, 장기 대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성호 / 속초시 교통과장
'관공서, 금융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공유주차장으로 주차장을 확산하고...교통난을
좀 분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속초시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1천 9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속초에서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속초관광수산시장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박민석)

江原日報

2023년 03월 21일 (화)

인물동정 21면

◇심영곤강원도의원(삼척)



은 21일 오후 4
시 부산 누리마
루 APEC하 우
스에서 개최되
는 대한민국시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
차 정기회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3월 20일 (월)

종합

[동정] 심영곤 강원도의원

심영곤 도의원(삼척)은 21일 오후 4시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1일 (화)
종합 02면

“도청 제2청사의 개념은 분산 아닌 확장시키는 것”

김진태, 문화부문 추가 요구 진화

속보=강릉 지역사회가 2청사 행정 기능에 문화 부문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논란(본지 3월 20일자 2면)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김진태 도지사는 20일 “도청 제2청사 개념은 분산이 아닌 확장의 개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의회에서 신년 연설할 때, 2청사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원도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나뉘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힘이 모여져야 할 때 분산되는 것 같아야 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청사는 분산의 개념이 아닌, 무엇인가를 더 늘려가고 확장시키는 개념이다. 앞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일 도청기자실에서 도청 제2청사, 조직개편 등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영

로 논의 과정에서 잘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내부협의조율과정이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도는 도본청과 2청사 행정

기능 조율에 대해 사실상 큰 틀의 조율은 마친 상태다.

제2청사는 기존 구상대로 해양·수산업부와 수소산업과 신소재 등 영동권 특화산업 지원, 관광 부문 등을 중심으로 짜여질 예정이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1일 (화)
종합 03면

특별법·제2청사·반도체…정치력 시험대 오른 김 지사

주요 현안 산적 해법 마련 주목
위기 정면돌파·해결의지 강조
“정부 부처·삼성과 협의 지속”

김진태 도지사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강원도의 굵직한 현안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4월 입법관철을 비롯해 7월부터 가동되는 강릉소재도청 제2청사의 행정권한 조율과 이와 연동되는 도본청, 2청사 조직개편 등의 현

안을 조기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표 공약인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 원주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인 공업용수·전력 문제에 더해 대기업 참여 및 투자 확약까지 받아야 한다.

정부와 삼성그룹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해 원주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김 지사의 해법 마련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20일 주재한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3월이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정말 많다”며 “특별자치도, 2청사, 반도체 산업 등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 협의를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30일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정부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데, 이를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청사 현안과 연동된 조직개편안에 대해 선이달 말 발표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반도체 현안에 대해 김 지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는 “강원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우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이미 수도권이고, 용인에서 원주는 불과 50여 km”라며 “윤석열 대통

령도 지난해 반도체 중부권 클러스터에 원주가 함께 묶여가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는데, 적어도 원주가 중부권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정부 발표는 기존 시설이 있는 곳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신규 지정 가능성은 (원주에) 남아있다”고 낙관했다.

김 지사는 “여러가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삼성과 만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상호의논할 것이다. 가능하면 이달 내 만났으면 좋겠다”면서 “(삼성측의)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는 현재 조율 중”이라고 했다. 박지은

江原日報

2023년 03월 21일 (화)
사회 04면



제2차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협업위원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제2차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협업위원회가 20일 강원대 집현관에서 공동위원장인 김진태 도지사, 김현영 강원대 총장, 신경호 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위원회는 플랫폼 1차 연도 성과실적 및 2차 연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총괄운영센터장 임명안 등을 심의했다. 신세희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21일 (화)
인물 21면

道,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정지원본부 보고회

강원도는 20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주재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행정지원본부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행사 준비 상황과 실·국별 지원 과제 및 주요 현안사항 등을 점검하고 성공 개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행사가 두 차례 연기되고 입장권 판매 저조, 해외국가 참가 미흡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



◇강원도는 20일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행정지원본부 보고회를 열고 대회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제행사에 걸맞게 해외 지방정부 초청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단체 관람

객 유치 총력, 화재·감염병·응급환자 대처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기영기자

[포토뉴스]강원도-도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



강원도와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이 20일 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진태 지사와 이호범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와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이 20일 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진태 지사와 이호범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와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김진태 지사, 이호범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양측 본교섭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강원도와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이 20일 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진태 지사(왼쪽)와 이호범 노조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1일 (화)

종합 01면

지역의료 소멸 집중진단

강원도, 오늘 대학병원장 간담회

내일 5개 의료원 인력확보 등 논의

속보=지역의료 소멸 문제(본지 3월 20일자 1면) 해결을 위해 강원도와 도내 대학병원장들이 21일 머리를 맞댄다. 이어 22일에는 도내 5개 의료원과 의간담회가 진행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21일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김택우 강원도 의사회 회장,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 이재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 백순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 등과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서비스 발전 방안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자체·병원 협력 대응 및 의료인력난 타개를 위한 해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내 의료인력 확보와 필수의료(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위한 대학병원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 촘촘한 지역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2일에는 영월의료원에서 도내 5개 의료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청취한다.

도내 병원과 의료원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4억 원이 넘는 연봉을 내걸고 응급실 의사를 구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고, 대학병원 역시 의사와 간호사 등이 줄되사 하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는 20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지역의료 소멸 문제”라며 “땀질식 처방이 아닌 머리를 맞대고 정확한 실상과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1일 (화)

종합 02면

강원 바이오·헬스산업 4개 권역 집중 육성

도, 춘천 원주 강릉 홍천 전략 발표

남부내륙 노인 위한 헬스케어 실증

강원 바이오·헬스산업혁신을 위한 권역별 로드맵이 나왔다.

춘천에는 전국 유일의 체외진단 산업화 지원센터,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구축이, 원주는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 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집중육성된다. 강릉이 도내 유일의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됨에 따라 강릉에는 KIST천연물연구소의 대규모 천연물 라이브러리 확보 및 연구지원이 본격화된다. 홍천은 국가항체클러스터를 전국 유일 항체 특화 연구단지로 조성하는 작업이 본격도에 오르게 된다.

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권역별 특화산업 고도화와 함께 남부내륙권 실증 테스트 베드 및 권역을 연계한다. 특히, 춘천과 홍천은 바이오 융합 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진단과 바이오 의약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생태계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평창과 정선을 중심으로 한 남부 내륙권에는 스마트 헬스케어타운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노인들을 위한 기술인 제론테크를 기반으로 한 첨단헬스케어 제품 활용 등 대규

모 서비스 실증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AI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강원 바이오 헬스산업에 접목해 나간다.

윤인재 강원도 산업국장은 "강원 바이오·헬스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지은·김덕형

江原日報

2023년 03월 21일 (화)

종합 02면

道-삼성 이달 중 원주 반도체 산업 투자 협의

김진태 지사 “의제·일정 조율 중” ... 신규 투자 여부 관심
수도권 클러스터 원주 확장 ‘중부권 반도체 벨트’ 실현 주목

속보=강원도가 이르면 이달 내 삼성(본보 20일자 1면 보도)과 만나 원주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해 협의한다. 삼성의 강원권 신규 투자가 이뤄질지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기 용인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한 가운데 인접한 원주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중부권 반도체 벨트’ 구상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 내에 삼성과 만나려고 한다. 최근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의논하겠다는”고 밝혔다.

아직 강원도와 삼성 간 미팅 일정과 의제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강원도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논의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구체적인 의제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는 조율 중이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주 용인 및 전국 비수도권 지역에 3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직후 강원도에 먼저 미팅을 제안했다.

강원도는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 정책이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재차 강조하며 3가지 기회 요인을 들었다.

김 지사는 “첫째 강원도는 이미 수도권으로 용인에서 원주까지 50km 거리에 불과하며, 둘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원주를 방문해 반도체 중부권 클러스터에 원주가 함께 묶여 가는 것이 좋겠다고 직접 발언했다”고 말했다.

또 “셋째는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 평택, 화성 등 기존에 반도체 산업 시설이 있는 곳에 한정됐고 신규 지정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기반을 조성할) 강원도와 원주에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원주가 영동고속도로와 KTX로 직접 연결돼있고 수도권의 용지, 용수, 전력 부족 등을 고려하면 원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21일 (화)
문화 20면

도내 10개 시·군에 장애아 돌보미 없어 '양육 지원정책 구멍'

활동지원사 대비 임금체계 안 좋아
6세 이하 장애아 돌보줄 인력 부족
활동지원사업 대상 기준 개선돼야

강원도 18개 시·군 중 10곳에 '장애아 양육 돌보미'가 없어 장애아 돌봄에 공백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도내 만 18세 미만 장애아 양육 돌보미가 필요한 장애아동 수는 2,200여명이나 장애아 돌보미는 73명이다. 이마저도 춘천 32명, 원주 24명, 강릉 9명 등 특정 지자체에 몰려 있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선호도가 몰리고, 돌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	-0세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등록장애인

보미의 낮은 임금, 근무 시간 등 복합적인 문제로 장애아 가족 양육 돌봄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 양육 돌보미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0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1명당 연간 960시간, 평균 한 달 80시간의 돌봄을 지원한다. 반면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주휴수당, 연차수당, 방학 보조금, 명절 인센티브 등을 받고 있다. 춘천에서 9년 동안 장애아 양육 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최선희(54)씨는 "똑같이 법정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명절 인센티브 등 추가 수당을 받는다"며 "돌봄 시간도 정해져 평균적으로 한 달에 80시간만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애아 양육 돌봄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A씨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길 바라므로 만 6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옮기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말했다. 탁승희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팀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기관은 18개 시·군에 다 있기 때문에 소속 활동지원사들이 양육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지만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일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활동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을 만 6세부터가 아니라 장애등록을 한 시점으로 한다면 돌봄 공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1일 (화)
인물 23면

정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범국민추진위 활동 돌입

공동대표단 선출 내달 출범식
지방균형발전 당위성 등 확보
"도 신성장동력 정책 지원 필요"

정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결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강원도민·스포츠인·문화예술인추진위원회는 최근 춘천 세종호텔에서 올림픽 국가정원 추진비상대책회의를 열고 3개 추진위를 통합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전영록 강원도이동장연합회장과 홍양자전 대한체육회 부회장, 이재한 강원도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 등 8명의 상임공동



강원도민·스포츠인·문화예술인들이 정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있다.

대표단과 40인의 공동대표단을 선출하는 한편 기존 3개 추진위를 4개 분과 위로 확대 개편하는 등 조직 체계를 정비했다. 전영록 상임공동대표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은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다는 국제적 명분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이라는 점,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방법으로 최적의 대안이라는 점 등 그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산림청은 생태복원이라는 원칙만 되풀이하며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 정치권 역시

'산림청을 설득하고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는 아직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공동대표들도 "강원도와 같은 중부권인 충주와 대전·세종 등이 지역 정치권의 강력한 활동에 힘입어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 유력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자칫 중부권의 다른 지역이 선정된다면 도민들의 실망과 소외감·상실감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같은 실질적이고 명분있는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국민추진위는 4월 중에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주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1일 (화)

지역 17면

양양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속도

군,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하반기 착공 목표 2025년 완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양양군현북면 중광정리 일대 친환경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군은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연어양식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4월 초 지방산업단지계획 통합심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친환경 K-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감도.

밝혔다. 지난 2020년 강원도와 양양군, 동원산업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된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주

민간담회와 유관기관 협의 등에 이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에 대한 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중도에 지방산업단지계획 통합심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원산업이 K-스마트양식 주식회사를 설립해 중광정리 11만6824㎡ 부지에 조성하는 육상연어양식단지는 오는 2025년 연어양식을 위한 수조와 건축공사까지 모두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연어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2만 규모의 대서양 연어 생산과 함께 R&D센터, 가공공장 등 관련사업이 확대돼 대규모 일자리창출과 생산 유발효과 등도 기대되고 있다.

이정렬 군 기업지원팀장은 “그동안 동원산업, 강원도와 친환경 K-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연어의 고장 양양에 연어양식단지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 연어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훈

江原日報

2023년 03월 21일 (화)

지역 11면

횡성 서원에 힐링 식물박물관 만든다

군 원주허브팜 오늘 협약

5년간 200억 투입 조성

【횡성】횡성 서원면에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는 식물 박물관이 조성된다.

횡성군은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명기 군수와 원주허브팜 농장 차성환 대표, 사업예정지 주민 대표, 실무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물 박물관 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원주허브팜은 옥계리 일원 5만2,800㎡에 앞으로 5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야생화를 활용한 식물 박물관을 만들 계획이다. 원주허브팜이 이전할 부지는 인근에 오크밸리 리조트, 벨라스톤CC 등 골프장이 밀집돼 있으며 경기도 등 수도권과 강원권에서 모두 접근이 편리한 지역이다. 옥계리 일대에 식물 박물관이 조성되면 서원면이 체험과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관광클러스터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원주에 강원도 최초의 식물 박물관으로 문을 연 원주허브팜은 1,000여종의 야생화와 습지가 있는 정원을 갖춰 연간 2만여명이 찾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김명기 군수는 “정부 예산이 아닌 순수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원주허브팜 사업은 지역발전과 관광클러스터 구축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1일 (화)

지역 12면

강릉시 153억원 투입 대형 산림재해 막는다

**3년간 나무 식재 등 산림복구
전문진화대 등 배치 감시 강화
특별 점검반 편성 취약지 관리**

강릉시가 옥계 등 대형 산불피해 지역에 조림 사업을 벌이고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림피해 억지력을 높인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153억원을 들여 대형 산림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지난해 발생한 옥계 대형산불 피해지의 2

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면적 1400여ha 가운데 사유림과 공유림 등 조림이 필요한 598ha를 3년차에 걸쳐 산림복구를 실시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300ha에 소나무와 자작나무 등을 심고, 주택가에는 밤나무와 감나무 등을 식재한다. 이번 조림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산불로 인해 소실된 산림이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또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동반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

라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전문진화대 120명과 감시원 140명, 진화차 22대, 산불헬기 5대를 집중배치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산불방지 특별 기동 점검반을 편성해 산불취약지역의 순찰을 실시한다. 산불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해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 사업도 벌인다.

시는 올해 사업비 36억원을 들여 옥계, 왕산, 연곡, 주문진 등 1930ha

의 숲을 정비하고 임도도 개설한다.

이와함께 사방댐 4곳을 신설하고, 사방댐을 준설하는 등 2~3차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산불이라도 신속하게 대응해 산불이 대형화되지 않도록 초동진화에 나서고 산불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조림복구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불방지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1일 (화)

사설/칼럼 19면

국가사적 건봉사지 명소화 과제

-여행 자산화 기회... 보전 계획, 규제완화 관건

고성군 금강산 감로봉 자락에 위치한 건봉사지가 국가 사적으로 승격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의 성지 위상에 걸맞은 본래 모습으로 복원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6세기경 창건된 건봉사는 만일 염불회의 발상지이자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불교 신앙의 중심 도량입니다. 더불어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와의 인연, 사명대사 유정의 자취가 있는 고찰입니다. 사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의 대표 명소로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인 520년에 승려 아도화상이 '원각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절은 역사만큼 많은 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 세조의 금강산행 일정 중 왕실의 원당으로 지정된 이래 7대에 거쳐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조선 세조실록에 따르면 금강산 여러 사찰에 시주한 세조에게 붓다의 자비로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단 이슬인 감로(甘露)'와 꽃비가 내리고 상서로운 기운이 돌아 그윽한 향기가 퍼졌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명대사 유정(惟政·1544~1610)은 이곳에서 승병을 모집해 훈련했으며, 1605년 일본에 사신

으로 갔다가 부처님의 치아와 사리 등을 되찾아와 이곳에 봉안했습니다.

건봉사지의 사적 승격은 건축사적인 면에서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조선시대 사찰 배치에서 보이는 예불공간 중심의 구성과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불공간과 승방이 균일하게 구성된 양식을 보여준 고려시대 다원식(多院式)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각종 역사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성, 사역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석조유물 등 역사적·학술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고성군과 도는 건봉사지를 고성의 대표적인 역사 명소로 조성하는 과업을 안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강원도, 고성군과 협력해 사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사찰을 불교의 성지로 단장하고, 한국사 단면을 읽을 수 있는 장소로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왕곡마을, 김일성 별장 등과 연계한 역사 여행 코스로 부각할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군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건봉사 등공대의 규제완화도 과제입니다. 고성군의 지속적인 건의와 국방부의 적극적 자세가 요구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1일 (화)
사설/칼럼 19면

지역의사제 도입해 대폭 양성해야

-수도권 병상 증가세 의료인력 이탈가중, 처우개선도 한계

강원도내 공공의료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하면 곧바로 의료공백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심화하며 도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퇴사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610명에 달했습니다. 급여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상향만으로는 해결 한계에 도달했음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본지 기획취재 '위기의 지역의료기관'을 통해 드러난 의료환경 실태를 보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때 진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환자가 사망하는 비율은 늘고 있으며, 필수 진료 과목은 폐쇄되고,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 등 다른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의료환경 구조가 더 강화되는 추세여서 암울합니다. 수도권 대학병원 측은 병상수를 늘리고 있어 지역의사인력 이탈을 더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의사가 없어 기본진료과목조차도 이용이 어려운 반면에 서울에서는 의료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논할 정도로 기반시설 및

인력환경 격차는 매우 심합니다.

18년 동안 의과대 정원을 동결하면서 누적된 의사인력 부족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강원도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특히 농산촌 등 지에서는 공공의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병으로 키우기 쉽습니다.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불모가 돼 있는 상황은 하루빨리 타개돼야 합니다.

올들어 열악한 지역의료실태가 사회현안으로 부각되면서 3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공동활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인력 문제를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협의하는 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해당 업계에 따라 좌우지대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국회엔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10여건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통해 의사인력을 확충하도록 중앙정부 의지를 재차 촉구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1일 (화)

사설/칼럼 19면

정부, 강원특별자치도에 관심 있거나 한 건가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관심이 있거나 한 건가. 강원도가 늦어도 5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86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회에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강원도가 요구한 특례와 관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방청 등의 부처에서는 대부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다

“국방부·산림청 등 타 지자체와 형평성 들어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부처 대부분 부정적”
공감 이뤄진 분야부터 정비해 나가야 할 때

양한 이유를 들어 전폭적인 수준의 권한 이양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정부 부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역의 사무를 관장한다. 중앙부처의 사무권한 지방 이양과 기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분권,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산업과 인구를 국토 공간에 정상적으로 분포시키는 분산, 수도권과 지방의 기능을 조정하는 분업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완전하게 정착시켜야 하는 것은 이제 시대 흐름이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의 민의를 충분히 살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

현에 장애 요인이 돼 왔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그 업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장사무 중복에 따른 비능률,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중앙의 시각과 입장에서 관련 정책이 입안되고 획일적으로 시행되며 현장의 실상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배경이기도 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문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자치행정에 대한 불신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해묵은 과제다. 경험 법칙상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계획과 집행 간 시차가 길어질수록 실현 가능성은 낮아진

다. 그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이제는 옥석을 구분할 시기가 됐다. 우선 공감대가 이뤄진 분야부터 손질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이제는 지방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적 구현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때다. 그리고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의 핵심 특례를 담고 있다.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 여야 모두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상황이긴 하지만 강원도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1일 (화)

사설/칼럼 19면

사흘간 산불·화재 20건, 경각심 높여야 할 때다

강원도 내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등에서 산불을 비롯해 총 20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불 것으로 전망돼 산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강원지방 기상청은 17일 오전 11시를 기해 도 전역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했다. 앞으로 열흘 넘게 도내에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도내 전역이 화약고나 다름없는 셈이다. 매년 3~4월이면 도내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물론 지자체 등에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산불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고 산림 15ha를 태운 18일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의 산불은 야산 인근 주민이 버린 화목보일러 재에서 불길의 최초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일어난 정선 산불은 논밭에서 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길이 인근 산으로 옮겨붙었다고 한다. 바짝 마른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는 때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는 속담처럼 소방 당국이나 지자체가 아무리 단속해도 지역 주민들이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허사다.

산불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번 붙었다 하면 진화하기도 쉽지 않다. 산불은 겨울철보다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 봄철은 대기가 건조해 산림이 머금고 있는 수분이 적어 작은 불씨에도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 산림청 산불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한 해 평균 481건의 산불이 나 1,087ha의 산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중 3월과 4월에 발생한 산불이 각각 123.6건과 105.5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6%나 됐다.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90%에 달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산불 예방은 공염불이 될 우려가 높다는 의미다.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산림 당국이 아무리 예방활동을 벌인다고 해도 주민들의 관심과 경각심 없이는 산불을 막을 수 없다. 봄철 나들이객이 급증하고 있다. 청명·한식도 다가오고 있다. 모두가 입산때 화기 소지하지 않기 및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불조심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또한 초기에 산불을 잡으려면 주민들의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조기 진화를 위해서는 산림청과 소방서, 지자체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불 비상대비체제를 갖추는 게 필수다. 불은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